



걱정스러운 대학 교육 여건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

6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요새 대학생들은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느냐?”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없었던 중·고생 교복은 다시 착용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편인데, 왜 배지를 달고 다니는 대학생은 그렇게도 없느냐는 얘기였다. T셔츠만 입더라도 반드시 배지를 달았던 우리들의 치기(稚氣) 어린 대학 시절과는 이래저래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게 그 날 함께 했던 친구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했다.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대학의 변화는 정말 팔목할 만하다. 우선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군 단위 농촌 지역을 가도 대학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학과별 학생 수 또한 상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필자가 다녔던 대학 경영학과의 경우 90명 정원이 5백 명 가까운 숫자로 불어나 한꺼번에 강의실 받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형편이다.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돼 온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측면은 없는지 걱정 또한 떨쳐 버리기 어렵다.

대학이 단순히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교습소나 직업 훈련원과 대학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평생을 따져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비슷한 또래들이 함께 모여 때로는 장군처럼 뚝뚝뚝 견고, 때로는 주정뱅이처럼 휘청거릴 수도 있는 게 대학 시절이라는데 누구도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논리를 배우면서 때로는 무모하고, 책임과 방종을 함께 의식하고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때이기에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학 교육은 교습소나 직업 훈련원의 그것과는 달리 꼭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 환경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급속한 팽창으로 졸업장이라는 일종의 자격증을 양산하는 강습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들에게 교수가 직업 훈련원 강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때가 없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다니던 60년대 후반보다 대학 여건이 나빠진 느낌을 떨쳐

“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필자는 동조한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을 어떻게 뽑을 지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갖는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학년인데도 서로 얼굴도 모르는 동급생이 적지 않다는 얘기. 단과 대학별 학과별 축제 행사는 없어진지 오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기분을 갖는다.

어쨌든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은 급격히 엷어지고 있는 감이 짙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대거 서울 지역 대학으로 편입해 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일부 지방 대학 문제를 대학생들의 모교애나 귀속 의식 결여로 풀이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채 남발된 대학 신설 인허가 등 잘못된 교육 정책 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형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른바 명문 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들의 자기 대학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우려할 수준이란 걸 대학 관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군 복무와는 별개로 휴학하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까닭이 무엇인지 새겨 봐야 한다. 졸업을 미루고 외국 대학으로 어학 연수를 가는 학생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국민 소득이 뒷받침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 교육 능력에 대한 불신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미국 대학의 한국인 어학 연수생 수가 일본에서 온 학생 수를 크게 웃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풀이가 가능하다.

해마다 등록 시준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 대학에서 학생 데모가 빚어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가르쳐 주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쏟아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과연 지나친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능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대학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왜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대학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적성이나 전공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우선 들어가고 보자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도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학 교육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학으로부터 편입생은 뽑으면서 같은 대학 내에서의 전과(轉科)는 철저히 불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터무니없이 많은 과목을 전공 필수로 분류해 사실상 다른 학과 강의는 들어볼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학과목 분류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여기에 겹쳐 특정 전공 필수 과목 수강 신청도 학생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가나다순인 출석부를 기초로 교수가 정해져 있다니 전시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을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통하도록 바꿔 나가

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수강 신청 학생이 없는 교수는 도태되는 구조가 되어 하고, 전공 과목 변경도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가능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적성에도 맞지 않고 비전도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계속 전공을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가적인 낭비다.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할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필자는 동조한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을 어떻게 뽑을 지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 평가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 학사 운용을 교육부에서 시시콜콜 간여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맡겨 놓으면 잘 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대학 내부 구조가 경쟁의 논리가 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대학생들의 터무니없는 엘리트 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대학 다닐 때도 방학 때 농촌 봉사 활동을 가는 것을 '농촌 계몽 활동' 따

위로 표현하는데 심한 거부감을 느꼈었다. 아직 배우는 단계인 대학생들이 지나친 자부심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성숙된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기(氣)가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패기와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때가 오히려 잦다. 그것이 필자의 지나친 기우(杞憂)라면 달리 할 말이 없지만, 대학 교육에 뭔가 잘못이 있어 빚어지는 현상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필자**

신상민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합동통신사 사회부 기자, 신아일보 경제부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및 신동아부 차장,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초청 연구원,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실장,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세계발전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